

전자책 산업의 시장 동향과 사업자 전략

이 은 민*

1. 개 요

미국의 전자책 서비스와 전자책 단말기 판매 분야에서 모두 미국 1위인 아마존(Amazon)은 얼마전 199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킨들 파이어(Kindle Fire)를 출시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유통과 전자책으로만 출시되는 출판 산업을 시작했으며, 킨들 이용자들을 위한 정액제 전자책 대여 서비스를 론칭하였다. 한편 미국 대형서점 보더스(borders)는 전자책 시장 확대로 지난해 말부터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 결과 올해 7월에는 파산에 이르렀다.¹⁾ 실제로 미국 도서출판협회(AAP)는 2011년 2월에 전자책 매출이 페이퍼백의 매출을 넘어섰다고 발표했고,²⁾ 아마존의 전자책 매출은 2011년 1월에 종이책(페이퍼백, 하드커버) 전체 매출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³⁾

이렇듯 전자책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관련 업계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전자책 시장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책 산업의 시장규모, 산업구조 변화와 사업자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전자책 시장을 전망하고, 주요 사업자들의 전략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분석실 부연구위원, (02)570-4314, micha76@kisdi.re.kr

1) 《지디넷코리아》(2011. 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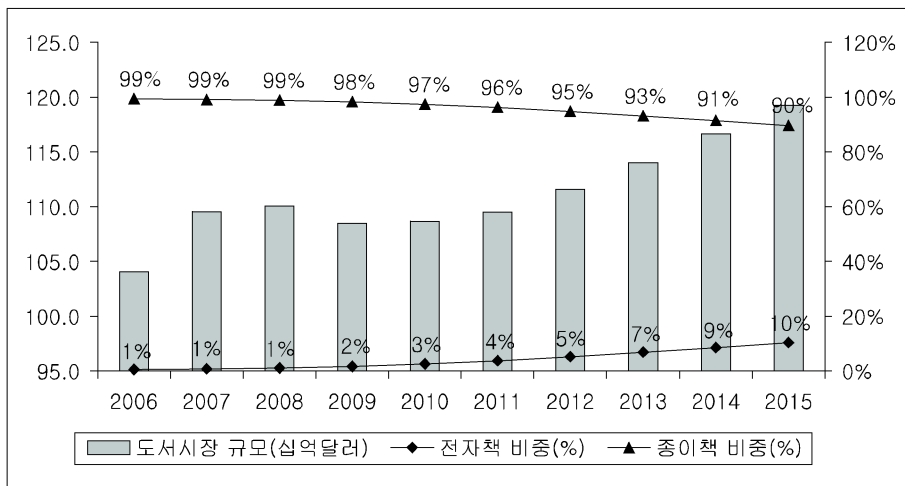
2) AAP(2011. 4. 14)

3) 《전자신문》(2011. 3. 28)

2. 전자책의 시장규모 및 전망

시장조사기관 PwC에 따르면 전 세계 도서 산업(book publishing)의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1,095억 달러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9% 증가하여 1,192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이 중 전자책 시장은 2006년에 5.6억 달러 규모(도서 시장의 1%)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11년 13억 달러(도서 시장의 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34.7%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123억 달러(도서 시장의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전 세계 도서 산업(Book Publishing Industry) 시장규모 및 전망



자료: PwC(2011)

2011년의 주요 국가별 전자책 산업의 시장규모는 미국 25억 달러(전 세계 전자책 시장의 60% 비중), 일본 7억 달러(10%), 한국 3억 달러(7%), 독일 2억(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011년 미국 전자책 시장은 25억 달러 규모로 자국 도서 시장 전체의 7.6% 수준이며, 향후 연평균 30.9%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61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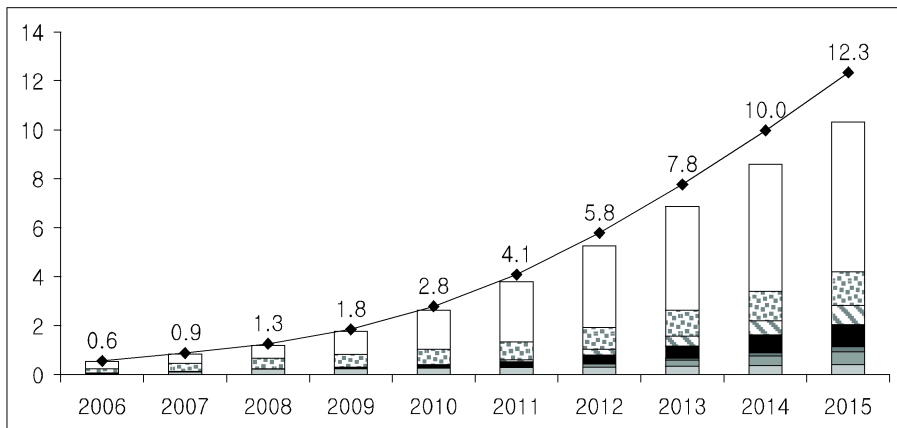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이 전자책 전용단말 킨들 사업과 전자책 콘텐츠 판매를 병행하며 전자책 시장을 이끌고 있다. 킨들의 성공 이후 반스앤노블(Barnes&Noble)이 전자책 전용단말 누크(Nook)를 출시하였고, 애플과 구글 등은 자사 운영체제와 태블릿을 기반으로 전자책 콘텐츠 유통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미국 출판협회(AAP)는 2011년 2월 한 달간 전자책 매출이 전년 대비 202% 증가하고, 다운로드 오디오북은 동기간 3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1년 2월의 전자책 매출은 9천30만 달러로 페이퍼백(paperback)의 매출 8천120만 달러를 넘어섰다.⁴⁾

2011년 일본 전자책 시장은 7억 달러 규모로 자국 도서 시장 전체의 9.5% 수준으로 추정되며, 향후 연평균 17.2%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14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스마트폰이 확산되기 전부터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보급된 일본은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책 서비스가 일찍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자책 시장이 확산되면서 통신 사업자들이 전자책 콘텐츠 유통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존, 애플, 구글 등 디지털 유통 부문의 글로벌 사업자들이 일본에 진출하고 있어, 향후 일본 사업자들은 이들과 경쟁구도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주요국의 전자책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달러)



자료: PwC(2011)

4) AAP(2011. 4. 14)

2011년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은 3억 달러 규모로 도서 시장 전체의 5.9% 수준으로 추정되며, 향후 연평균 9.8%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41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8.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인터파크, 교보문고 등에서 전자책 유통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그 동안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2011년 상반기에 들어 교보문고가 전자책 판매 100만 권을 돌파⁵⁾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향후 태블릿의 확산과 함께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전자책 산업의 시장구조와 최근 동향

(1) 전자책 산업의 시장구조와 특징

전자책(eBook)의 산업구조에서는 인쇄 과정이 디지털 변환 과정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책을 제작할 수 있어, 소수의 전문 작가가 아닌 다수의 일반인이 콘텐츠를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종이책 시장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던 인쇄, 배급, 보관, 재고관리 등의 제작과 유통 부문이 생략되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단순해진다. 심지어 작가가 제작 톨을 통해 직접 제작하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책 시장에서는 종이책 산업과는 달리 인터넷 사업자, 솔루션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단말기 사업자 등 기존에 없던 참여군이 새롭게 진입하게 된다. 전자책 산업에서는 유통 플랫폼이 전자책의 배급과 판매하는 역할,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단말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심지어 개인에게 출판 시스템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또한 전자책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단말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자책 전용단말(예: Amazon의 Kindle)과 태블릿(예: Apple의 iPad) 등 기기와의 연동을 통해 서비스 가치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

5)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누적 판매량이 265만 권(전자신문, 2011. 7. 28)

책 산업에서는 저자와 소비자의 접점에 있는 유통 플랫폼을 중심으로 출판·유통·네트워크 및 단말기 제공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종이책과 전자책의 산업 구조



이러한 차이로 전자책 산업의 수익구조는 종이책과 다르게 구성된다. 전자책 시장은 산업구조가 단순화됨에 따라 가격이 크게 낮아진다. 이와 같은 비용의 감소는 인쇄, 운송, 보관 등의 과정을 생략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WSJ가 종이책의 가격을 26달러라고 가정하고 수익구조를 분석한 결과, 인쇄·보관·유통에 3.25달러 소요되고, 출판사에게는 5.85달러, 도매상·서점에게는 13.00달러, 작가에게는 로열티로 3.90달러가 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하게 전자책을 제작할 경우 가격은 12.99달러로 책정되는데, 출판사 이익과 작가 로열티는 종이책의 수익구조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인쇄·보관·유통에 소요되는 비용(3.25달러)과 도매상·서점에 주는 비용(13.00달러)이 발생하지 않고, 대신 0.90달러의 디지털 변환비용이 발생한다.⁶⁾

6) WSJ는 출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추정하였고 마케팅 비용은 제외(WSJ, 2011. 9. 11)

[그림 4] 종이책과 전자책의 수익구조 변화



자료: 《WSJ》(2011. 9. 11) 바탕으로 재구성

(2) 전자책 글로벌 참여자들의 최근 동향

전자책 시장의 유통플랫폼에는 종이책 산업에서 유통을 담당하던 아마존, 반스앤노블, 교보, 인터파크 등의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AT&T와 Verizon, 일본의 KDDI, 한국의 KT 등의 통신 사업자들도 유통 플랫폼 사업자로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애플, 소니, 삼성 등 단말 사업자들도 유통 플랫폼 사업자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태블릿과 휴대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애플은 전자책 스토어(iBooks)를 출시하며 이 시장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단말 시장 확대를 통해 모든 웹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구현하려는 구글 역시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업자는 바로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일찍이 자가 출판(Kindle Singles)⁷⁾, 도서관 대여 서비스(Kindle Library

7) 2011년 1월에 출시된 킨دل 싱글즈(kindle singles)는 Kindle Store를 통해 5천~3만 단어 분량의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자가 출판·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Lending)⁸⁾ 등 다양한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아마존의 움직임은 직접적으로 출판 시장에 진입한 것이다.

아마존은 지난 8월에 앞으로는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작가들과 직접 출판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가을 즈음에는 122개의 자체 출판서적을 발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마존을 통해 출판될 책은 오프라인 서점을 제외하고 인터넷 배송과 전자책 형태로만 판매될 예정이다. 이러한 아마존의 움직임은 전체 도서 산업 구조에서 출판사와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어, 이에 대해 관련 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자책 사업자인 동시에 미국 최대의 오프라인 서점 체인인 반스앤노블은 아마존과 전자책 독점 출판계약을 맺은 출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1,300개의 매장을 거느린 반스앤노블은 배트맨, 수퍼맨 등 수퍼히어로 캐릭터로 유명한 출판사 ‘DC코믹스’가 11월 출시될 아마존의 ‘킨들 파이어’와 독점 출판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해당 출판사의 책을 서점에서 모두 철거하는 방침을 정했다.⁹⁾

또한 아마존은 일정액(연회비 79달러)을 결제하면 아마존의 전자책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마존은 ‘Amazon Prime Program’을 이용하는 킨들 소유자들이 연회비만 내면 자유롭게 책을 대여할 수 있는 멤버십 대여 서비스(Kindle Owners’ Lending Library)를 진행할 예정인 것이다. 이 멤버십으로 아마존에 있는 TV와 다양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데, 이번 멤버십 대여 서비스로 그 혜택이 늘어난 셈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전자책은 베스트셀러 100권을 포함하여 약 5천여 권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주요 출판사들은 아마존의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이러한 비즈니스가 결국 도서 시장의 매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8) 2011년 4월에 론칭한 서비스로, 미국 내 11,000개의 도서관과 연계하여, 그 도서관들이 보유한 전자책을 킨들 혹은 킨들 App을 통해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9) 《조선닷컴》(2011. 10. 22)

아마존은 ‘Amazon Prime Program’을 진행함에 있어 한 번에 1권씩의 전자책만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 킨들 이외 기기의 App을 통해서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존의 139달러 킨들(WiFi)과 199달러 킨들 파이어 구매에 대한 유인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전자책 고객들에게 연간 79달러에 이르는 ‘Amazon Prime Program’ 가입에 대한 유인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⁰⁾

또한 흑백의 전자책 전용단말기인 킨들을 고수하던 아마존이 올해 11월 태블릿인 킨들 파이어를 파격적인 가격 199달러에 출시할 계획이라는 점은, 전자책 외에도 태블릿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용을 제공하여 아마존 고객들을 흡수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같은 아마존의 행보는 향후 애플의 아이패드에게 위협이 될 전망이다.

반스앤노블도 올해 11월 15일에 태블릿 출시를 앞두고 있다. 반스앤노블은 미국 최대의 오프라인 유통망을 보유한 업체로서, 전자책 전용 단말기인 Nook의 선전으로 미국 전자책 시장의 27%를 점유하고 있다. 반스앤노블은 이번 누크 태블릿의 출시를 통해 아마존의 킨들 파이어처럼 전자책 외에도 동영상, TV쇼, 영화 및 웹서핑에 좀 더 특화된 단말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¹¹⁾ 누크 태블릿은 킨들 파이어보다 50달러 높은 249달러에 출시될 예정인데, 이는 애플의 와이파이 전용 아이패드의 절반 정도의 가격이다. 그리고 용량이나 배터리 측면에서도 킨들 파이어에 비해 더 나은 사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베스트바이에서는 이미 누크 태블릿의 가격을 199달러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누크 태블릿의 기기 사양 경쟁력이 킨들 파이어에 못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²⁾

그러나 콘텐츠 보유 측면에서 아마존은 전자책, 음악, 게임, 비디오, 각종 애플리케이션 등 콘텐츠의 종류와 양에서 반스앤노블을 압도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를 소비자

10) 《WSJ》(2011. 11. 3)

11) 《WSJ》(2011. 11. 8)

12) 《지디넷코리아》(2011. 11. 7)

단말에 전송하는 기술 인프라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아마존에 비해 반스앤노블이 열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1〉 킨들 파이어, 누크 태블릿, 아이패드와의 사양 비교

	킨들 파이어	누크 태블릿	아이패드
업체	Amazon	Barnes & Noble	Apple
크기	4.7인치×7.5인치	5.0인치×8.1인치	7.31인치×9.5인치
용량	8GB	16GB	16~64GB
배터리	최대 8시간	최대 11.5시간	최대 10시간
가격	199달러	249달러	499달러

자료: WSJ(2011. 11. 8)

4. 결 어

최근 전자책과 관련된 글로벌 사업자들의 빠른 움직임들을 보면,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종이책 시장이 축소되고 전자책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곧 전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많은 사업자들이 전자책 전용단말 및 태블릿의 확산과 더불어 서비스를 다양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책 시장의 규모는 작으나 모바일 기기와 무선 네트워크 보급 수준이 높아, 전자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국내의 출판사, 유통사, 통신 사업자들이 전자책 사업을 확장 또는 새롭게 론칭하고 있어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 전자책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교보문고는 2011년 상반기에 100만 권 이상의 전자책을 판매하는 등 선전하고 있으며, 퀄컴과의 협력을 통한 전용단말기 출시로 전자책 시장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퀄컴이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는 독자기술인 초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을 채택해 전력 소모가 적고 햇빛 아래에서

도 독서에 불편함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교보문고는 2011년 10월부터 교보문고의 1인 출판시스템인 펍플(Puple) 서비스를 시작했다. 출판사나 저자가 교보문고 시스템에 등록한 후 전자책을 직접 만들어 유통하고, 원할 경우 종이책으로도 출판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펍플을 통해 출간된 콘텐츠 수익은 저자가 60%, 교보가 40%로 나누게 될 예정이다.¹³⁾

이 밖에도 예스24, 알라딘, 리브로,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이 ‘전자책 원스톱 유통연합’을 형성하여 소규모 출판사나 작가, 블로거 등을 대상으로 전자책 제작툴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유통시키는 등 국내 사업자들의 전자책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¹⁴⁾

국내 이통 3사의 경우에도 전자책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2010년 4월) ‘국북카페’를 통해 전자책 사업에 나선 KT의 경우 현재 7만 종 이상의 전자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상반기에 시장에 진입한 SKT는 현재 4만 종 이상의 전자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가장 늦게 진입한 LGU+는 non-DRM 전략으로 여러 유통사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¹⁵⁾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은 만큼, 올 하반기는 국내 사업자들이 고객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적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책 사업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스트라베이스》(2011. 11. 11), “국내 이통 3사의 e-Book 사업 추진 현황 비교”.
 《전자신문》(2011. 7. 28), “교보문고, 6개월 만에 전자책(e북) 100만 권 팔았다...
 업계 최단 기 기록”.

13) 《전자신문》(2011. 11. 2)

14) 《지디넷코리아》(2011. 7. 15)

15) 《스트라베이스》(2011. 11. 11)

《전자신문》(2011. 11. 2), “교보문고, 킨덤과 손잡고 전용 전자책 단말기 출시”.

_____ (2011. 3. 29), “美서 2년내 전자책 매출 종이책 넘어설 것”.

《조선닷컴》(2011. 10. 22), “美 아마존·오프라인 서점, 사활 건 책 전쟁”.

《지디넷코리아》(2011. 11. 7), “누크 태블릿, 킨들 파이어 의식?...199달러”.

_____ (2011. 7. 19), “美 2위 서점 보더스 파산... “e북 때문에””.

_____ (2011. 7. 15), “1인 출판 지원, ‘전자책 원스톱 서비스’ 개시”.

AAP (2011. 4. 14), “E-books Rank as #1 Format among All Trade Category for the month”.

PwC (2011),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1-2015”.

《WSJ》(2011. 9. 11), “E-Book Prices Prop Up Print Siblings”.

_____ (2011. 11. 8), “Barnes & Noble Unveils \$249 Nook Tablet”.

_____ (2011. 11. 3), “Amazon Launching E-Book Lending Library”.